

가장 많이 보급되는

동아세계대백과사전

동아출판사

水 정신대 만행규탄
木 양심수 석방촉구
金 美軍범죄에 항의

94.2.24 文

示威

「속도戰」서「지구戰」으로



정신대할머니(위), 民家協어머니들(가운데)의 시위,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 촉구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.

매주 수요일은 정신대 시위의 날, 목요일만 되면 民家協의 양심수 석방요구, 또 금요일엔 「미군들 각성하라」는 목소리...
언제부터가 주한미군 방송인 채널2에서 는 정가프로그래밍 화면 밑에 자막이 깔리기

“요구 관철 때까지 계속”

每週정례화... 4년째 百54회집회 단체도

시작했다. 「모든 미군 들은 금요일에는 서울역 앞으로 다니자 마시오」. 서울역광장에 서 열린 주한미군 별들이 한국인 세모너

를 감독,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국내 25개 민간단체들은 11월 4일 첫 시위를 벌였다. 그들은 금요일이었다. 그뒤 금요일집회는 정례화했다. 24일째 집회는 17번째. 정신대 수모집회의 「명성」은 설명할 필요는 1백55번째. 民家協 어머니들도 목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종로2가 탑골공원에 모인다. 「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」 참석을 위해서다. 지난해 9월 23일 이래 이 집회는 75회나 계속됐다.

각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구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. 군사정권 패와는 달리 문민정부 아래에서의 시위 전황은 「속도전」 아닌 「지구전」이란 뜻이다. 〈許敏기〉